
公山城 出土 漆甲 銘文 再考

이 태 희*

목 차

- I. 들어가며
 - II. 명문(銘文)의 검토
 - III. 백제 명광개와 칠갑
 - IV. 당의 갑옷 제작 및 관리
 - V. 나오며
-

* 국립중앙박물관

국문요약

2011년과 2014년 공주 공산성 성안마을에서 명문이 있는 칠갑(漆甲)이 발견되었다. 기년(紀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백제사 관련 자료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칠갑의 제작지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명문을 다시 검토하여 칠갑의 국적을 밝히고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명문의 작성 동기를 살펴보았다.

칠갑의 국적과 관련하여 단서가 되는 것은 관직명이다. 명문에서 확인되는 관직은 참군사(參軍士), 대부(大夫), 배융부(陪戎副口), 호군(護軍), 총 4개이다. 참군사는 다른 미늘편에서 지명 ‘익주(益州)’가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병조참군사(兵曹參軍事)로 추정된다. 대부(大夫)는 문산관으로 앞의 관호에 따라 종2품부터 종5품하 사이이며, 배융부(陪戎副口)은 무산관 최하위인 종9품하 배융부위이다. 호군은 훈관(勳官) 9전으로 정3품에 비견된다. 이상은 모두 당의 관직으로 명문의 작성 주체가 당이었음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는 칠갑을 문헌 기록에 등장하는 백제 갑옷의 실물로 이해하였으며 심지어는 ‘백제 명광개’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명광개라고 추정한 이유는 표면에 옷칠[황칠]을 입혀 빛을 반사하는 효과를 냈을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광개는 가슴 부분에 호심경을 부착한 갑옷으로 칠의 유무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형태에 따른 구분이다. 갑옷 표면에 광택을 내는 것은 동시기 유행했던 의장 효과로 광요갑이나 산문갑에서도 볼 수 있다. 당육전(唐六典)은 갑옷 13종을 열거하고 재질을 언급하였는데, 그 가운데 명광개(갑)는 광요갑, 산문갑 등과 더불어 칠갑으로 분류하고 칠갑과 같이 가죽으로 만든 것은 따로 피갑으로 명시하였다. 문헌기록에 등장하는 백제의 갑옷도 대부분 금속제로 재질 상 칠갑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칠갑은 명광개가 아니며 문헌기록 상의 백제 갑옷과도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당은 사적으로 주요 무기를 생산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동시기 율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칠갑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천성령(天聖令) 영선령(營繕令)의 규정이다. 천성령 영선령에 따르면 갑옷 제작 후 표면에 제작연월, 장인, 담당관의 성명, 주와 감, 미늘의 수를 주칠로 명기하도록 하였다. 이는 칠갑 명문의 내용 및 형식과 일치한다. 따라서 칠갑의 명문은 생산 후 이력을 주기한 것으로 보인다.

공산성 출토 칠갑은 당 전반기 갑옷의 제작과 관리가 율령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실물 자료이다. 향후 명문의 추가 확인과 더불어 고고학적·보존과학적 분석을 통해 칠갑이 담고 있는 여러 이야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Ⅰ 주제어 Ⅰ

백제, 당, 갑옷, 칠갑, 피갑, 명광개, 명광갑, 천성령, 율령, 주칠, 명문

I. 들어가며

2011년 공주 공산성 성안마을에서는 명문이 있는 칠갑(漆甲)이 발견되었다. ‘行眞觀十(행정관십)’ 등 기년(紀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백제사 관련 사료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발굴을 주관했던 이남석은 백제의 제작품으로 보고 ‘의자왕(義慈王) 혹은 그에 준하는 백제의 고관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이남석 2011). 이에 대해 이도학은 백제의 기년 자료 다수가 중국의 연호 대신 간지를 사용했으며 함께 발견된 칼도 백제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당의 장수가 착용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명광개(明光鎧)’를 언급하며 제작지 또는 재료의 산지는 백제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다(이도학 2012). 반면 중국학자 양홍(楊鴻)은 중국 내 출토 자료와의 유사성을 근거로 당(唐)에서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楊鴻 2012). 이후 이현숙은 2014년 동일 장소에서 추가로 발견된 명문을 소개하며 이남석의 주장을 이어받아 백제 제작설에 무게를 실었다(이현숙 2015). 그리고 중국학자 바이싱건(拜興根)은 역으로 당의 상사품(償賜品) 또는 645년 대고구려전에 참전했다가 백제에 후송된 후 사망한 당장(唐將)의 유류품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拜興根 2016).

현재 공식 보고서의 발간을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칠갑에 관한 논의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¹⁾ 일차적인 원인은 명문 기록이 단편적인데다 그나마도 결실된 부분이 많은 탓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논자 대부분이 명문의 분석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칠갑의 독특한 출토 정황과 ‘백제 멸망’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는 데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본고는 명문을 다시 검토하여 지금까지의 해석에서 간과한 부분을 돌아보고 칠갑의 명문이 갖는

1) 이한상의 다음 언급은 논쟁의 현단계를 잘 요약하고 있다.

“이 관장은 갑옷 출토 맥락을 검토한 뒤 ‘백제산 갑옷을 의자왕 혹은 그에 준하는 인물이 사용하다 패망 시점에 묻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견해를 발표한 뒤 갑옷의 주인을 당나라 장수로 보아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갑옷 주인이 패망한 백제의 왕족인지, 백제를 패망시킨 당나라 장수인지 단정하기 어려우나 백제 ‘최후의 날’을 함께한 갑옷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한상, 백제 ‘최후의 날’ 함께한 공산성 갑옷[이한상의 발굴 이야기(28)], 『조선일보』(2018.3.29.)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7/2018032703379.html)

아울러 본고를 준비하는 중에 국제학술대회 ‘백제 칠피갑옷의 비밀’(2018.8.27.~28. 국립공주대학교)이 개최되었다. 참석하지 못하여 학술대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나 자료집 및 신문 보도(경향신문, 2018.8.28.)를 확인해보면 추가로 확인된 일부 명문을 제외하면 명문 내용에 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미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 쟁점이 되었던 칠갑의 사용자, 칠갑의 제작지를 확인하는 데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I. 명문(銘文)의 검토

2011년과 2014년 출토된 명문자료의 석문은 <표 1>과 같다.

표 1. 공산성 출토 칠갑 명문

2011년 출토	① <input type="checkbox"/> 李 <input checked="" type="checkbox"/> 銀 ④王武監大口典	②史護軍 ⑤行貞觀十	③緒 ⑥九年四月廿一日
2014년 출토	⑦參軍事 ⑪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大夫	⑧ <input type="checkbox"/> 作陪戎副 ⑫益州/ <input type="checkbox"/> 都 <input type="checkbox"/>	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支*二行左 ⑬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⑩近趙良

☒: 일부 자획이 확인되는 글자

☒: 전체 자형이 확인되나 석독이 불가능한 글자

☐: 보이지 않지만 전후, 중간 글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

* 이남석은 ‘七人’으로 석문했으나 글자 크기 등으로 볼 때 ‘支’로 보인다.

첫 번째로 기년 관계 명문을 살펴보자. ⑥번은 ⑤번과 포개진 상태로 발견되어 서로 연결하여 읽는다(이남석 2011: 182). ‘行貞觀十九年四月廿一日(행정관십구년입일일)’은 기존 논자들이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645년 4월 21일이다. 이도학은 칠갑의 착장자가 당의 장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정관(貞觀)’ 연호의 사용을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그는 백제가 중국의 연호를 사용한 예가 없으며 동시기 백제와 당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정관’ 연호를 사용했을 리 없다고 주장하였다(이도학 2012: 333). 양홍도 이를 근거로 갑옷의 제작지를 당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현숙은 칠지도(七支刀) 명문 및 동성왕(東城王) 때 남제(南齊)에 보낸 표문을 제시하며 백제가 자체적으로 연도를 표기할 때는 간지를 사용하였지만 국제관계에서는 중국의 연호를 병용했다고 주장하며 ‘정관’은 칠갑이 외교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이현숙 2015: 185-186).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정관’ 앞의 ‘行(행)’이 있다. 이남석은 ‘행’을 연호 ‘정관’이 문장 중간에 들어간 것으로 정관 이하의 일자가 외교사건의 어느 특정 시간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이남석 2011: 184). 양홍은 ‘행’을

‘○○道行軍(○○도행군)’에서 ‘군(軍)’이 생략된 표현으로 보았다. 연호 앞의 행은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명문의 추가 발견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듯하다.

두 번째는 인명이다. 인명은 ①, ⑩번에 보인다. 이도학은 동시기 금석자료를 근거로 ■가 ‘肇(조)’의 이체자임을 밝혔다. 아울러 이씨가 백제인의 성씨에 등장하지 않는 점을 들어 이조은(李肇銀)을 당나라 사람으로 보았다(이도학 2012: 334). 반면 이현숙은 왕인(王仁)을 예로 들며 팔성 등 기존에 알려진 성씨 외에 중국계 성씨가 더 있었을 것이라며 중국인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하였다(이현숙 2015: 184-185). ⑩은 ‘趙良(조량)’이 이름인지, 뒤가 결실되었는지 알 수 없다. 어쨌든 이조은, 조량 모두 다른 전세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만큼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

세 번째는 지명이다. 지명은 ⑫번의 ‘益州(익주)’가 유일하다. 익주는 오늘날 쓰촨성 청두[成都]로 수(隋)의 촉군(蜀郡)이다. 당은 618년 익주로 개명하고 총관부(總管府)를 설치하여 주변 지역까지 관할하도록 하였다. 620년에는 총관부를 혁파하고 서남도행대(西南道行臺)를 세웠고 다시 626년 도독부(都督府)로 고쳤다. 칠갑 명문의 ‘貞觀十九年(정관십구년)’(645)에는 익주, 면주(綿州), 간주(簡州), 가주(嘉州), 능주(陵州), 아주(雅州), 미주(眉州), 공주(邛州) 등 8개 주와 무주도독부(茂州都督府), 휴주도독부(嶺州都督府)를 통솔하였다.²⁾ 이현숙은 ‘익주와 관련된 지명은 고대 한반도에서 구체적으로 찾기 어려우나, 중국의 경우 익주는 개주(蓋州)의 다른 표기 지명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였으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이현숙 2015: 184-185).³⁾ 개주는 당이 고구려의 개모성(蓋牟城)을 점령하고 설치한 주이다. 개모성의 함락은 칠갑 명문 기년과 동일한 645년[貞觀19] 4월이다.⁴⁾ 그러나 시점을 제외하고 개모성의 함락이 본 칠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당은 새로 주를 설치할 때 기존의 주명(州名)을 회피했다. 그럼에도 새로 설치하는 주의 명칭을 기존의 주, 특히 익주와 같이 큰 주의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2) 『舊唐書』 卷41 地理4 劍南道 成都府, pp.1663-1664.

3) 이현숙은 익주를 개주로 판단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개주로 했을 경우,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4) 李世勣과 李道宗이 蓋牟城을 함락한 날자는 4월 13일이다.

『新唐書』 卷2 太宗紀, p.44, “(貞觀19년 4월) 癸亥, 李世勣克蓋牟城.”

네 번째는 관직명이다. 관직명은 국적과 시기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뿐더러 칠갑 명문의 여러 곳에 등장하는 만큼 칠갑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관직명이 등장하는, 또는 기존에 관직명으로 추정했던 부분은 ①, ②, ⑦, ⑧, ⑪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공산성 출토 칠갑 명문 중 관직명

명문	관직	비고
① 李銀	司馬	이남석 추정
② 史護軍	長史, 護軍	長史: 이남석 추정
⑦ 參軍事	參軍事	
⑧ 陪戎副尉	陪戎副尉	
⑪ 大夫	大夫	

이남석은 ①번 ‘李銀(이은)’ 앞의 잔존 자획을 ‘馬(마)’로 읽고 ‘사마(司馬)’로 추정했다. 그리고 ‘護軍(호군)’ 앞의 ‘史(사)’도 장사(長史)로 보았다. 그는 ‘사마, 장사, 호군은 중국 관직으로 보이지만 백제에서 중국에 사신으로 파견되는 인물에 사마 혹은 장사란 관직을 부여한 예가 많은 만큼 그 의미 파악에 신중해야 한다’고 하였다(이남석 2011: 185). 이남석의 견해를 이어받은 이현숙은 장사는 ‘백제 시대 외관직의 하나로 외교 사절의 임무를 띤 것으로 보이며 …(중략)… 늦어도 구이신왕(久爾辛王)대에는 설치되었다고 보기도 한다’고 하였으며 2014년 출토 칠갑 명문에서 확인된 참군사(參軍事)와 대부(大夫)도 백제의 관직으로 분류했다(이현숙 2015: 183-184). 그럼 먼저 이상의 관직을 백제의 관제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 다음은 백제가 중국에 보낸 사신들의 관명이다.

표 3. 백제의 대중국사행자 관명

국가	연도	사신	출전
宋	424	長史 張威	『宋書』 卷94 「東夷傳」 百濟, p.2394.
宋	450	私假臺使 馮野夫 西河太守	『宋書』 卷94 「東夷傳」 百濟, p.2394.
北魏	472	私署冠軍將軍 駙馬都尉 弗斯侯 長史餘禮 龍驤將軍 帶方太守 司馬 張茂	『魏書』 凡卷92 「百濟傳」, p.2217.

국가	연도	사신	출전
南齊	490	行建威將軍 廣陽太守兼長史 高達 行建威將軍 朝鮮太守兼司馬 楊茂 行宣威將軍兼參軍 會邁	『南齊書』卷58「東夷傳」, p.1011.
南齊	495	行龍驤將軍 樂浪太守兼長史 慕遣 行建威將軍 城陽太守兼司馬 王茂 兼參軍行振武將軍 朝鮮太守 張塞	『南齊書』卷58「東夷傳」, p.1012.
隋	598	長史 王辯那	『隋書』卷81「東夷傳」百濟, p.1817. 『北史』卷94「四夷上」百濟, p.3121.
隋	607	使 燕文進 / 使 王孝隣	『隋書』卷81「東夷傳」百濟, p.1819. 『北史』卷94「四夷上」百濟, p.3122.
隋	611	其臣 國智牟	『隋書』卷81「東夷傳」百濟, p.1819. 『北史』卷94「四夷上」百濟, p.3122.
唐	627	王姪 信福/福信	『舊唐書』卷199上「東夷傳」百濟, p.5329. 『三國史記』卷27「百濟本紀」

이남석의 언급대로 백제의 사신에게서 장사, 사마, 참군 등의 관명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관직은 중국 내 지방 세력과 외국을 동일시했던 남북조시대의 특수한 책봉관계에서 나온 것이다(김종완 1995 참조). 남북조시대 중앙권력이 이완되면서 황제는 각 지역의 지방관을 도독제군사(都督諸軍事)에 임명하고 장군호(將軍號)와 함께 사지절(使持節), 지절(持節), 가절(假節) 등을 가수(假受)하여 군정(軍政) 및 민정(民政)에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도독은 실무처리를 수행하는 기구로 막부를 개설하고 관리를 임명하였다. 장사·사마·참군은 막부의 고위 속료였으며 그 가운데서 장사는 도독의 부재 시 그 역할을 대신하는 차관이었다. 남북조시대 각국은 이를 대외 관계에도 적용하였다. 남조(南朝)와 북조(北朝) 모두 외국의 군주에게도 도독제군사, 장군호를 수여했다. 그런 까닭에 동시기 이와 같은 직함을 갖고 사행 오는 나라는 백제뿐만이 아니었다. 동시기 중국과 교류했던 여러 국가의 사절도 같은 직함을 갖고 있었다.⁵⁾ 따라서 장사, 사마, 참군은 책봉관계에서 백제왕이 책봉 받은 관작에 수반하여 등장한 것으로 이해된다. 백제왕이 국내에 별도의 막부를 두었는지, 각 관직이 백제 정치 제도에서 어떤 기능을 하였는지 알 수 없다.⁶⁾

5) 남북조시대 長史, 司馬, 參軍 등의 직함을 가진 사신을 파견한 나라는 高句麗, 倭, 土谷渾, 林邑, 武都, 宕昌, 高昌, 中天竺 등 12개국에 달한다. (김종완 1995: 65-89 참조)

6) 盧重國은 이 관직을 王公府의 속관과 같은 성격으로 보아야 하며 장사, 호군, 참군 등의 관직과 막부의 설치 문제는 왕, 후, 장군, 태수 등의 관직 문제와 더불어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노중국 1988: 222-3)

장사(長史) 등 관함을 지닌 사신은 589년 왕변나(王辯那)를 마지막으로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수·당과 교류했던 여타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⁷⁾ 이와 같은 변화는 수대 지방통치제도 개편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는 583년[開皇3] 주-군-현 3급을 주-현 2급으로 고쳐 지방행정제도를 간소화하였다. 592년[開皇12]에는 자사가 도독을 겸하며 주부(州府)와 군부(軍府)의 2개 조직을 거느렸던 것을 군부로 단일화하고 지방장관의 속료 임명 권한을 축소하여 유외관(流內官) 이상은 모두 중앙정부의 이부(吏部)에서 선발하도록 하였다. 실무를 박탈당한 주부의 관리에게는 품관의 자격만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나 595년[開皇15] 이마저도 폐지하였다. 당은 수의 제도를 이어받았다. 지방장관의 속료 임명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대외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토욕혼(土谷渾)은 관제를 장사, 사마, 장군을 왕공(王公), 복야(僕射), 상서(尙書), 낭중(郎中)으로 바꾸었고⁸⁾ 고창(高昌)의 경우에는 중국과 동일한 관명을 사용했다는 것이 당의 공격을 받는 빌미가 되었다.⁹⁾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백제가 당으로 보내는 사신에게 장사, 사마, 참군 등의 관직을 부여했을 리 없다.

⑪ ‘대부(大夫)’도 백제의 관직으로 언급되었다. 이현숙은 풍납토성 경당지구 9호 유구 출토 ‘대부’명 직구단경호의 해석에 관한 기존 논의를 근거로 대부를 개로왕대 왕후제의 시행 과정에서 설치된 백제의 관직명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부’가 관제에 실존했는지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여타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로왕대의 관직이 7세기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의자왕 혹은 그에 준하는 백제의 고관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칠갑에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위상을 유지했던 왕성(王姓) 및 팔성귀족이나 백제 고유의 관등인 좌평(佐平), 달솔(達率)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칠갑의 명문에 등장하는 관직명으로 볼 때 명문 작성의 주체를 백제로 보기 어렵다.

그러면 칠갑 명문에서 확인되는 관직을 당의 제도에서 살펴보자. 결획 및 한 글자에서 유추한 사마, 장사를 제외하고 분명하게 확인되는 관직은 호군, 참군사, 배

7) 唐에 長史 또는 司馬를 파견한 예는 高昌國이 유일하다. 高昌國은 639년 長史 麴雍을 당에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高昌國의 관제는 北魏의 都督府 체제를 기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달리 長史, 司馬 등이 국내에서도 구체적인 직능을 지니고 있었다.

8) 『舊唐書』 卷198 吐谷渾, p.5297. “其官初有長史·司馬·將軍. 近代已來, 有王公·僕射·尙書·郎中.”

9) 『資治通鑑』 卷195 太宗 貞觀13年(639), p.6146. “高昌王麴文泰多遏絕西域朝貢 …(중략)… 且謂其使者曰: ‘高昌數年以來, 朝貢脫略, 無藩臣禮, 所置官號, 皆準天朝, …(중략)… 明年當發兵擊汝.’”

용부(위), 대부이다. 먼저 ②‘史護軍(사호군)’의 호군(護軍)을 이도학은 글자 뜻 그대로 해석하여 ‘당태종의 친위군 장수’로 이해했고 한 걸음 더 나가 호군을 갑옷의 착장자로 보았다. 그러나 호군이 그의 주장대로 황제의 친위군을 의미하는 것일까? 당대 호군의 용례를 살펴보면 세 종류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개국 초기 진왕부(秦王府)와 제왕부(齊王府)의 무관(武官)으로 정4품하의 직사관(職事官)이다.¹⁰⁾ 두 번째는 훈관(勳官)이다. 훈관은 산관(散官)과 마찬가지로 등급과 신분의 표시일 뿐 직분(職分)과 실권이 수반되지 않는다. 훈관은 북주(北周)-수-당의 군주를 배출한 관롱집단(關隴集團)이 스스로의 자신감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산관과 별도로 군공(軍功)에 기반하여 만든 위계이다.¹¹⁾ 12전 상주국(上柱國)부터 1전 무기위(武騎尉)까지 총 12등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호군(護軍)은 9전으로 종3품에 비견된다.¹²⁾ 그러나 당정관11년 태종이 문무산관을 본품으로 정하면서 훈관은 본계의 자격을 상실하고 점차 명목상의 관호가 되었다. 세 번째는 신책군(神策軍)에 설치된 호군교위(護軍校尉)이다. 이도학의 이해대로라면 첫 번째에 가깝지만 각 왕부(王府)의 호군(護軍)은 현무문(玄武門)의 변(變)(626년) 이후 혁파되었기 때문에 칠갑 명문의 기년과 맞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호군교위가 소속된 신책군은 안사의 난(755-763) 이후 새로 조직한 중앙군이다. 따라서 명문의 호군은 훈관임에 분명하며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훈관은 특정 관서에 소속되거나 업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이것만으로는 ‘친위군’으로 해석할 수 없다.

⑦의 ‘叅軍事(참군사)’는 ‘참군사(參軍事)’로 ‘참모군사(參謀軍事)’의 간칭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조시대에는 막부의 속관이었으나 수당을 거치며 의미가

10) 『舊唐書』卷42「職官」1, p.1784, “秦王, 齊王 아래 統軍을 護軍, 副統軍을 副護軍이라 하였다.(秦王·齊王下統軍爲護軍, 副統軍爲副護軍.)”

11) 陳蘇鎮, 「北周隋唐의散官與勳官」,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1-1, pp.29~36, 참조.

12) 『唐六典』(김택민 주편, 『譯註 唐六典』, 신서원, 2005. 이하 『唐六典』은 본 역주본을 의미한다.) 卷2「尙書吏部」, 上-pp.238~241, “무릇 勳에는 12등급이 있다. 12전은 上柱國으로 정2품에 비견하고 11전은 柱國으로 종2품에 비견하며, 10전은 上護軍으로 정3품에 비견하고 9전은 護軍으로 종3품에 비견하여, 8전은 上輕車都尉로 정4품에 비견하고 7전은 輕車都尉로 종4품에 비견하며, 6전은 上騎都尉로 정5품에 비견하고 5전은 騎都尉로 종5품에 비견하며, 4전은 驍騎尉로 정6품에 비견하고, 3전은 飛騎尉로 종6품에 비견하며 2전은 雲騎尉로 정7품에 비견하고, 1전은 武騎尉로 종7품에 비견한다. 무릇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훈관을 수여해야 할 자는 모두 사훈낭중·원외랑에게 맡겨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런 다음 결정된 내용을 상주한다.(凡勳十有二等：十二轉爲上柱國, 比正二品；十一轉爲柱國, 比從二品；十轉爲上護軍, 比正三品；九轉爲護軍, 比從三品；八轉爲上輕車都尉, 比正四品；七轉爲輕車都尉, 比從四品；六轉爲上騎都尉, 比正五品；五轉爲騎都尉, 比從五品；四轉爲驍騎尉, 比正六品；三轉爲飛騎尉, 比從六品；二轉爲雲騎尉, 比正七品；一轉爲武騎尉, 比從七品. 凡有功效之人合授勳官者, 皆委之覆定, 然後奏擬.)”

변화되었다. <표 4>는 『신당서(新唐書)』 「백관지 (百官志)」에 근거하여 참군사의 분포, 인원, 관품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당대 참군사의 분포

	京兆府 河南府	親王府	衛率府	大都督府	上州	中州	下州
參軍	6 正8品下	2 正8品下		5 正8品下	4 從8品下	3 正9品下	2 從9品下
功曹參軍 司功參軍	2 正7品下	1 正7品上		1 正7品下	1 從7品下	1 正8品下	
倉曹參軍 司倉參軍	2 正7品下	1 正7品上	1-2 從8品下	1 正7品下	1 從7品下	1 正8品下	1 從8品下
戶曹參軍 司戶參軍	2 正7品下	1 正7品上		1 正7品下	2 從7品下	1 正8品下	1 從8品下
田曹參軍 司田參軍	2 正7品下			1 正7品下	1 從7品下	1 正8品下	1 從8品下
兵曹參軍 司兵參軍	2 正7品下	1 正7品上	1 從8品下	1 正7品下	1 從7品下	1 正8品下	
法曹參軍 司法參軍	2 正7品下	1 正7品上		1 正7品下	2 從7品下	1 正8品下	1 從8品下
士曹參軍 司士參軍	2 正7品下	1 正7品上		1 正7品下	1 從7品下	1 正8品下	
騎曹參軍		1 正7品下	1 從8品下				
冑曹參軍			1 從8品下				

[출전: 賴瑞和, 『唐代基層文官』, 中華書局, 2008, pp.159-160.]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당대의 참군사(參軍事)는 십육위(十六衛), 동궁태자솔부(東宮太子率府), 우림군(羽林軍), 절충부(折衝府) 및 군진(軍鎮) 소속으로 무관(武官)인 경우도 있지만 절대 다수는 경조부(京兆府), 하남부(河南府) 및 각 주의 문관(文官)이다. 그리고 품계도 소속 관서에 따라 정7품상부터 종9품하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익주’라는 지명이 등장한 점, 칠갑이라는 대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명문의 참군사는 ‘무관의 선거(選舉), 병갑(兵甲)과 기장(器仗), 문과 열쇠, 봉후(烽堠)와 전역(傳驛)의 일을 관장’¹³⁾하는 도독부의 병조참군사(兵曹參軍事)일 가능성이 높다.

13) 『唐六典』 卷30 「三府都護州縣官吏」, 下-pp.448~449. “兵曹參軍事 兵曹·司兵參軍掌武官選舉, 兵甲器仗, 門戶管鑰, 烽候傳驛之事.”

⑧의 ‘배용부□(陪戎副□)’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의 무산관(武散官) 종9품하 배용부위(陪戎副尉)¹⁴⁾임에 틀림없다. 산관은 출신(出身)과 문제(門第)를 판별하는 척도이다. 출신과 문제를 중시했던 문벌사회(門閥社會)에서 산관은 관리의 본품계를 의미했다. 동일한 직사관을 갖고 있어도 산품에 따라 고저가 달랐고 대우도 달랐다. 이에 따라 직사관과 산관의 조응을 나타내는 행수법(行守法)이 시행되었다. 이 현숙은 ‘당대의 직명이 공산성 옷칠갑옷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고 하였지만(이현숙 2015: 184) 칠갑 명문이 백제가 중요한 외교적 사건을 기술했던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하급 무산관인 배용부위의 존재는 이해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大夫(대부)’는 당대 문산관(文散官)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문산관은 총 29등급으로 그 가운데 종2품 광록대부(光祿大夫)부터 종5품하 조산대부(朝散大夫)까지 각기 서로 다른 관호(冠號)가 붙는 ‘대부’가 있다.¹⁵⁾

14) 『唐六典』 卷5 「尚書兵部」, 上-pp.478~482, “(武散官) 종1품은 驃騎大將軍이다. 정2품은 輔國大將軍이다. 종2품은 鎮軍大將軍이다. 정3품은 冠軍大將軍과 懷化大將軍이다. 종3품은 雲麾將軍과 歸德將軍이다. 정4품상은 忠武將軍이다. 정4품하는 壯武將軍이다. 종4품상은 宣威將軍이며, 종4품하는 明威將軍이다. 정5품상은 定遠將軍이며 정5품하는 寧遠將軍이다. 종5품상은 游騎將軍이며 종5품하는 游擊將軍이다. 정6품상은 昭武校尉이고 정6품하는 昭武副尉이며, 종6품상은 振威校尉이고 종6품하는 振威副尉이다. 정7품상은 致果校尉이고 정7품하는 致果副尉이며 종7품상은 翊麾校尉이고 종7품하는 翊麾副尉이다. 정8품상은 宣節校尉이고 정8품하는 宣節副尉이며 종8품상은 禦武校尉이고 종8품하는 禦武副尉이다. 정9품상은 仁勇校尉이고 정9품하는 仁勇副尉이며 종9품상은 陪戎校尉이고 종9품하는 陪戎副尉이다.(以二十有九階承而敘焉。從一品曰驃騎大將軍；正二品曰輔國大將軍；從二品曰鎮軍大將軍；正三品曰冠軍大將軍， 懷化大將軍；從三品曰雲麾將軍， 歸德將軍；正四品上曰忠武將軍， 正四品下曰壯武將軍；從四品上曰宣威將軍， 從四品下曰明威將軍；正五品上曰定遠將軍， 正五品下曰寧遠將軍；從五品上曰游騎將軍， 從五品下曰游擊將軍；正六品上曰昭武校尉， 下曰昭武副尉；從六品上曰振威校尉， 下曰振威副尉；正七品上曰致果校尉， 下曰致果副尉；從七品上曰翊麾校尉， 下曰翊麾副尉；正八品上曰宣節校尉， 下曰宣節副尉；從八品上曰禦武校尉， 下曰禦武副尉；正九品上曰仁勇校尉， 下曰仁勇副尉；從九品上曰陪戎校尉， 下曰陪戎副尉.)”

15) 『唐六典』 卷2 「尚書吏部」, 上-pp.171~181, “무릇 (文散官의) 品階는 29等級이다. 從1품을 開府儀同三司라하고, 正2품을 特進이라 하며, 從2품을 光祿大夫라하고, 正3품을 金紫光祿大夫라 하며, 從3품을 銀青光祿大夫라 하고 正4품上을 正義大夫, 正4품下를 通議大夫, 從4품上을 太中大夫, 從4품下를 中大夫라 한다. 正5품上을 中散大夫라 하며 正5품下를 朝議大夫라하고, 從5품上을 朝請大夫라하며, 從5품下를 朝散大夫라 한다.(凡敘階二十九：從一品曰開府儀同三司，正二品曰特進，從二品曰光祿大夫，正三品曰金紫光祿大夫，從三品曰銀青光祿大夫，正四品上曰正義大夫，正四品下曰通議大夫，從四品上曰太中大夫，從四品下曰中大夫，正五品上曰中散大夫，正五品下曰朝議大夫，從五品上曰朝請大夫，從五品下曰朝散大夫)”

표 5. 칠갑 명문의 관직 구분

職事官	參軍事(正7下~從9下)
散官	大夫(從2~從5下), 陪戎副尉(從9下)
勳官	護軍(從3)

마지막으로 관청 또는 관사명으로 ④‘王武監大口典(왕무감대구전)’이 있다. 이남 석은 왕무감을 관직으로 추정하고 대구전을 의제법식의 의미로 파악했다. 이도학은 『무경총요(武經總要)』(前集 卷6)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의 군제에서 편린을 찾을 수 있으며 당의 최고 신분층, 즉 분봉왕이 소유한 무기고라고 하였다(이도학 2012: 335). 그러나 『무경총요』의 어느 대목을 이야기하는지 적시하지 않았다.¹⁶⁾

이상 칠갑의 명문을 검토한바, 작성 주체는 당이 분명하다. 필자와는 다른 근거를 제시하였지만 이도학도 명문 작성의 주체를 당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는 ‘당장(唐將)이 착용한 정관명(貞觀銘) 칠갑(漆甲)’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백제의 손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명문 내용으로 볼 때 백제의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논자가 백제의 것 혹은 백제의 제작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이유는 위 인용문에서도 볼 수 있듯 명문 기년과 같은 해인 645년 의자왕이 당 태종에게 바친 금칠갑옷을 비롯하여 몇 차례에 걸쳐 등장하는 백제 갑옷 관련 기사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럼 당의 갑옷 관련 제도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 부분을 검토해보겠다.

Ⅲ. 백제 명광개와 칠갑

칠갑 명문에 나오는 ‘정관19년’은 645년으로, 이 해 당은 고구려를 상대로 대규모 원정을 단행했다. 태종이 친정하고 이세적(李世勣), 계필하력(契苾何力) 등 수당 교체기 및 돌궐과의 전투에서 활약했던 명장이 다수 참전하였다. 당은 개모성(蓋牟城), 요동성(遼東城), 백암성(白巖城) 등 고구려의 중진을 차례로 점령하고 각각 개주(蓋州), 요주(遼州), 암주(巖州)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안시성 전투에서 발목을 잡

16) 이도학이 근거로 든 『武經總要』(前集 卷6)에는 ‘下營法’, ‘營法’, ‘諸家軍營九說’, ‘下營擇地法’, ‘警備法’, ‘備夜戰法’, ‘立號法’ 등이 수록되어 있다.

한 채 겨울을 맞이했고 결국 9월 18일 당이 철수하면서 전쟁은 끝났다. 백제는 당 태종의 출정에 앞서 갑옷을 선물했다.

이때 백제가 금휴개(金髹鎧)를 바쳤다. 또한 현금(玄金)으로 문개(文鎧)를 만들어 사 줄에게 입혀 따르도록 하였다. 황제가 이적(李勣)과 만나자 갑옷의 광채가 햇빛처럼 반짝였다.¹⁷⁾

처음에 태종이 백제에 사신을 보내니 그 나라는 금칠을 채취해 철갑(鐵甲)에 칠하자 모두 황자색을 띠었다. 햇빛이 비치자 색이 번뜩이는 것이 금과 같았다. 또한 오채(五綵)로 현금(玄金)을 물들여 산문갑(山文甲)을 만들어 (입혀) 모두 장군을 따르게 하였다.¹⁸⁾

백제산 갑옷이 금휴개 만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칠한 산문개도 포함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백제가 당의 고구려 원정에 갑옷을 지원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백제 갑옷 관련 기사는 논자들이 공산성 출토 칠갑을 문헌기록에 등장하는 백제 갑옷의 실체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게끔 만들었다. 당의 장수가 착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던 이도학 조차 칠갑을 백제가 제작했거나 혹은 재료를 공급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호심경이 붙어 있는 당의 명광개와는 달리 갑옷에 황칠을 해서 빛이 번쩍였던 것이다. 그랬기에 상대방이 눈이 부셔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공격용 갑옷이 백제 명광개였다. ... 공산성 출토 칠갑은 옷칠이든 어떻든 갑옷 가죽표면에 칠을 한 게 분명하다. 즉 철갑에 칠한 것은 아니다. 보존처리 후 조사결과가 나오겠지만 칠갑 역시 명광개 종류에 속할 수도 있다(이도학 2012: 328-329).

이도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황칠을 한 갑옷을 ‘백제 명광개’로 지칭하며 칠갑이 명광개의 한 종류에 속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러 갑옷 가운데서도 ‘명광개’에 주목한 이유는 626년 무왕이 당에 보낸 선물 가운데 ‘명광개’가 언급되었기 때문일 것

17)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 “時百濟上金髹鎧, 丈以玄金爲文鎧, 士被以從. 帝與勣會, 甲光炫日.” 비슷한 기록이 『新唐書』에도 보인다. 『新唐書』 卷220 東夷 高麗 p.6191. “이때 백제가 금휴개를 바쳤다. 또한 현금으로 산오문개를 만들어 사줄이 입고 따랐다.(時百濟上金髹鎧, 又以玄金爲山五文鎧, 士被以從.)”

18) 『冊府元龜』 貞觀 19年(645) 5月 丁丑 “初太宗, 遣使於百濟, 國中採金漆用塗鐵甲皆黃紫, 引日翟色邁兼金, 又以五綵染玄金 制爲山文甲, 竝從將軍.”

이다. 그러나 645년 당이 고구려로부터 획득한 전리품 가운데 ‘명광개 1만령’이 있
 듯, 명광개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두루 사용했던 갑옷이다. 그러나 그의 언급대로
 공산성 출토 칠갑을 명광개로 부를 수 있을까?¹⁹⁾

갑옷에는 13가지가 있다. 첫째는 명광갑(明光甲)이고 둘째는 광요갑(光耀甲)이며 셋
 째는 세린갑(細鱗甲)이며, 넷째는 산문갑(山文甲)이며, 다섯째는 오추갑(烏鋌甲)이며,
 여섯째는 백포갑(白布甲)이며, 일곱째는 조건갑(阜絹甲)이며, 여덟째는 포배갑(布背甲)
 이며, 아홉째는 보병갑(步兵甲)이며 열째는 피갑(皮甲)이며 열한째는 목갑(木甲)이며,
 열두째는 쇠자갑(鎗子甲)이며 열셋째는 마갑(馬甲)이다. ... 『한서(漢書)』에 “위(魏)의
 무졸들은 세 부분으로 된 갑옷을 입었다”고 하였는데, 상반신에 하나, 무릎까지 오는
 바지 하나, 투구 하나로 모두 3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의 명광, 광요, 세린, 산문,
오추, 쇠자 등의 갑옷은 모두 철갑(鐵甲)이며 피갑은 물소와 코뿔소 가죽으로 만들지만
그 밖에 나머지는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이름을 붙인다.²⁰⁾

위에서 볼 수 있듯 당은 갑옷을 13종으로 구분했다. 그 가운데, 명광갑, 광요갑,
 세린갑, 산문갑, 오추갑, 쇠자갑은 철갑이며 다른 갑옷은 재료에 따라 이름을 붙였
 다. 공산성 출토 칠갑은 위 분류에 따르면 피갑에 해당한다. 철갑과 피갑은 각기
 다른 종류로 구분하였으며, 명광개의 재질은 기본적으로 철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다시 문헌기록에 등장한 백제의 갑옷으로 돌아가보자.

(무왕) 27년(626) 사신을 당에 보내 명광개(明光鎧)를 바쳤다. 고구려가 길을 막아 상
 국에 내조할 수 없다고 호소하자 고조가 산기상시(散騎常侍) 주자사(朱子奢)를 보내 우
 리와 고구려의 원한을 풀라하였다.²¹⁾

(정관) 11년(637)을 보내 내조하고 철제갑옷과 조각을 새긴 도끼를 바쳤다. 태종이 노고
 를 가상히 여겨 채백 3,000단과 비단옷(錦袍) 등을 선물로 주었다.²²⁾

19) 공산성 출토 칠갑을 ‘明光鎧’라고 처음 언급한 이는 이남석이다.

20) 『唐六典』 권16 武庫令, “甲之制十有三: 一曰明光甲, 二曰光要甲, 三曰細鱗甲, 四曰山文甲, 五
 曰烏鋌甲, 六曰白布甲, 七曰阜絹甲, 八曰布背甲, 九曰步兵甲, 十曰皮甲, 十有一曰木甲, 十有二
 曰鎗子甲, 十有三曰馬甲. (중략) (『漢書』曰: 「魏氏武卒衣三屬之甲。」謂上身一, 髀禪一, 兜鍪一,
 凡三屬也. 今明光·光要·細鱗·山文·烏鋌·鎗子皆鐵甲也, 皮甲以犀兕爲之, 其余皆因所用物名焉.)”

21)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 “二十七年, 遣使入唐, 獻明光鎧, 因訟高句麗梗道路, 不許來朝上國.
 高祖遣散騎常侍朱子奢, 來詔諭我及高句麗, 平其怨.”

22) 『舊唐書』 卷199上 「東夷傳」 百濟國, p. 5330. “十一年, 遣使來朝, 獻鐵甲雕斧. 太宗優勞之, 賜
 綵帛三千段并錦袍等.”

(무왕) 40년(639) 10월에 다시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철제갑옷과 조각을 새긴 도끼를 바쳤다.²³⁾

626년 당에 명광개를 선물한 무왕은 637년과 639년에도 철제갑옷과 조각을 새긴 도끼를 바쳤다. 637년과 639년에 선물한 갑옷이 명광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재질이 금속(철)이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앞서 인용한 『책부원구(冊府元龜)』에서도 ‘(백제에서는) 금칠을 채취에 철갑에 칠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백제가 당에 선사한 갑옷은 가죽이 아니라 금속으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도학은 황칠을 해서 빛을 내는 갑옷을 ‘백제 명광개’라고 지칭하였지만 변쩍이는 갑옷만 놓고 보면 광요갑과 산문개도 이에 해당한다. 명광개는 칠의 여부나 색 때문에 붙인 이름이 아니라 형태, 즉 호심경의 유무에 따라 구분한 것이며 그 재질은 철이었다. 따라서 황칠로 빛을 낸 명광개는 있을 수 있지만 재질이나 형태와 무관하게 황칠을 했다고 하여 ‘명광개’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제가 제작한 갑옷 대부분은 철갑이었다. 따라서 공산성 출토 칠갑은 재질이 가죽인 만큼 황칠 여부와 관계없이 ‘명광개’라 부를 수 없으며 옷칠을 했다는 것만으로 백제의 제작품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²⁴⁾

IV. 당의 갑옷 제작 및 관리

이상 명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하는 갑옷의 명문을 이해하기 위해 당의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三國史記』에서도 동일한 기록을 볼 수 있다.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 “겨울 12월 사신을 당에 보내 철제갑옷, 조각을 새긴 도끼를 바쳤다. 태종이 노고를 기려 비단옷과 채백 3천단을 주었다.(冬十二月, 遣使入唐, 獻鐵甲·雕斧. 太宗優勞之, 賜錦袍并彩帛三千段.)”

23)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 “四十年, 冬十月, 又遣使於唐, 獻金甲·雕斧.”

24) 이도학은 당의 장수, 특히 태종의 친위부대 장수가 착용했던 것으로 주장하는 한편 백제의 제작품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제기했다. 그는 논문의 ‘II-1. 漆甲은 明光鎧가 맞는가?’에서 칠갑이 명광개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III. 漆甲의 埋納 經緯’에서는 명광개로 단정하고 ‘백제 황칠로 만든 명광개를 여전히 착용한 당나라 장군들이 이제는 백제 침공에 나섰을 수 있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결론에서는 ‘명광개 여부나 매납 경위와 상관없이 당장이 착용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논지를 흐렸다. 논문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기술한 ‘명광개 여부 및 매납 경위’(이도학 2012)가 부언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금병기(禁兵器)를 사적으로 지니고 있으면 도1년반이다. [궁(弓), 전(箭), 도(刀), 순(盾), 단모(短矛)는 아니다.]

【소(疏)】‘금병기(禁兵器)’는 갑옷[甲], 노(弩), 모(矛), 삭(稍), 구장(具裝: 말갖춤) 등이다. 영(令)에 따르면 사가(私家)에서는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만일 모(矛), 삭(稍)을 갖고 있었다면 각기 도1년반이다. 주(注)에 언급한 궁(弓), 전(箭), 도(刀), 순(楯), 단모(短矛)는 사가(私家)에서 허가받아 갖고 있을 수 있다. 정기(旌旗)와 번치(幡幟) 및 의장(儀仗)은 잠시라고 갖고 있을 수 없다. 위반한 자는 ‘불응위중(不應爲重: 중요한 사안에 불응한 죄)’으로 장(杖)80에 처한다. 노(弩) 1장은 2등을 더하고 갑옷[甲] 1령 및 노(弩) 3장은 유(流)2천리에 처한다. 갑옷 3령 및 노 5장은 교(絞)이다. 사사로이 만든 자는 각기 1등을 더한다. [갑옷(의 재질)은 가죽, 철 등이다. 구장도 갑옷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우연히 습득하고 30일이 지난 후에도 관에 보내지 않았다면 사사로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²⁵⁾

당은 병기를 구분하여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했다. 갑옷은 노(弩), 모(矛), 삭(稍), 구장(具裝)과 함께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는 ‘금병기’에 속했다. 우연히 습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30일이 넘으면 갖고 있었던 것과 동일한 죄로 처벌하였다. 개인의 소지 뿐 아니라 사적 제작도 철저히 금했다. 사사로이 제작한 자는 소지한 죄보다 두 등급 높은 벌을 주었다. 즉 소지한 사람은 도1년반에 처했지만 만든 사람은 2등급 올려 도2년반으로 처벌했다.

금병기를 훔친 자는 도2년이다. 갑옷[甲], 노(弩)는 유2천리이다. 만일 절도죄가 가벼울 경우, 사유죄로 처벌한다. 기타 병기 및 정기, 번치를 훔친 죄는 장90이다. 만일 궁전을 지키는 병기를 훔친 죄는 1등을 더한다. 군(軍)과 숙위(宿衛)가 상대의 물건을 훔쳐 관용으로 충당한 죄는 각기 2등을 감한다.²⁶⁾

금병기를 훔친 것은 사유하는 것보다 무겁게 처벌하였다. 금병기 소지에서도 볼 수 있듯 갑옷과 노의 절도는 다른 금병기에 비해 무거운 벌을 받았다. 이는 금병기

25) 『唐律疏議』卷16 「擅興律」 243條, pp.314-315, 諸私有禁兵器者, 徒一年半, [謂非弓箭刀楯短矛者.] (疏)議曰, ‘私有禁兵器’, 謂甲弩矛稍具裝等, 依令私家不合有. 若有矛·稍者, 各徒一年半. 注云 ‘謂非弓箭刀楯短矛者’ 此上五事, 私家請有, 其旌旗幡幟及儀仗, 並私家不得輒有, 違者從‘不應爲重’, 杖八十, [甲, 謂皮鐵等, 具裝與甲同, 卽得闌遺, 過三十日不送官者, 同私有法.]

26) 『唐律疏議』卷19 「賊盜律」 275條, pp.352-353, “諸盜禁兵器者, 徒二年, 甲·弩者, 流二千里. 若徒罪經, 同私有法. 盜餘兵器及旌旗·幡幟者, 杖九十. 若盜守衛宮殿兵器者, 各加一等. 卽在軍及宿衛相盜, 還充官用者, 各減二等.”

가운데서도 갑옷과 노를 중요하게 여겼음을 보여준다. 갑옷은 개인이 제작할 수도 없고 갖고 있어서도 안 되는 물건이었다. 이는 역으로 국가가 갑옷의 제작과 관리를 전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하에서는 당이 갑옷을 어떻게 제작하고 관리했는지 살펴보겠다.

무덕초(武德初) … 무기감(武器監) 1인, 정8품하로 병장(兵仗)과 구목(廩牧)을 관장했다. 소감(少監) 1인, 승(丞) 2인, 주부(主簿) 1인이 있다. (무덕) 7년 없앴다가 8년 복치했다. 9년 다시 없앴다. 정관6년 무기감을 없앴다. 개원(開元) 이전 군기(軍器)는 모두 우상서(右尚書)에서 나왔다.²⁷⁾

당은 건국 이후 무기감을 설치했지만 이후 폐지와 복치를 반복했다. 결국 태종이 632년 무기감을 혁파한 이후 다시 설치되지 않았고 개원 연간까지 소부감 우상서가 병기의 제작을 담당했다.

우상서(右尚書): 영(令)은 2인으로 종7품하이다. 승(丞)은 4인으로 종8품하이다. 황제의 12개 마굿간에서 사용하는 말갖춤을 바친다. 매년 경조(京兆)와 하남부(河南府)에 모여 단장하여 바친다. 무릇 5품·3부의 장막, 도검(刀劍), 부월(斧鉞), 갑주(甲冑), 지필(紙筆), 인석(茵席), 이석(履舄)을 쓰임에 맞게 만들고 피모공(皮毛工)도 거느린다. 감작(監作)은 6인이다.²⁸⁾

위에서도 볼 수 있듯, 우상서가 제작하는 군기(軍器)에는 갑주도 포함되었다. 우상서는 장인집단을 통솔하였다. 우상서를 포함한 소부감 소속 제관서는 재료(금속, 피혁 등)가 필요한 경우 상서성에 상신하였다. 소부감의 요청을 받은 상서성(尚書省: 兵部)은 재료를 담당하는 각 관서에 공급을 지시하였다. 각 관서에서 소부감 소속 제관서로 재료를 보내면 소부감승(少府監丞)이 품명과 수량, 생산지를 기입한 장부를 작성하여 해당 관서로 보내고 부본을 소부감에 남겼다.²⁹⁾ 갑옷의 제작도 이 절차를 따랐을 것이다.

27) 『新唐書』 卷48 「百官」3 軍器監, p.1275. “武德初, 有武器監一人, 正八品下. 掌兵仗·廩牧. 少監一人, 丞二人, 主簿一人. 七年廢軍器監, 八年復置, 九年又廢. 貞觀六年, 廢武器監. 開元以前, 軍器皆出右尚書.”

28) 『新唐書』 卷48 「百官」3 少府, p.1270. “右尚書, 令二人, 從七品下; 丞四人, 從八品下. 掌供十二閑馬之轡. 每歲取於京兆·河南府, 加飾乃進. 凡五品三部之帳, 刀劍·斧鉞·甲冑·紙筆·茵席·履舄, 皆擬其用. 皮毛之工亦領焉. 監作六人.”

29) 『唐六典』 卷22 「少府軍器監」, 下-pp.105-106. “丞은 小府監의 일상사무를 처리한다. 무릇 少府監 소속의 다섯 관서에 제작하는 물품은 반드시 金石·齒革·羽毛·竹木 등이 필요한 경우 尚

715년에는 북도(北都: 태원)에 군기감(軍器監)을 설치하였다. 앞의 인용문에서 ‘개원이전 군기는 모두 우상서에서 나왔다’고 한 것은 개원연간 병기 제작 전담부서로 군기감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군기감 속하에는 갑옷을 제작하는 전문부서로 갑방서(甲坊署)를 두었다.³⁰⁾ 군기감은 명의상 소부감에 속했지만 실제로 거의 독립되어 있었고 군기감의 관품도 다른 소부 속관에 비해 높았다.³¹⁾

당대 갑옷 제작과 관리의 편린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천성령(天聖令)이 있다.³²⁾ 천성령은 송 인종(仁宗) 천성(天聖) 연간 시행한 영으로 “당령(唐令)을 근본으로 삼는다. 먼저 적어둔 현행 영은 예전 조문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제칙(制勅)을 참작하여 정하고 현재 쓰지 않는 영도 그 뒤에 덧붙여 둔다”는 원칙에 따라 제정되었다. 오늘날 당령은 여러 문헌에 산일 되어 있을 뿐 온전한 형태로 전하는 것은 없다. 그런 까닭에 천성령은 당령 복원의 중요한 열쇠로 주목받았다. 천성령 영선령(營繕令)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무릇 군사 기물의 제작은 모두 견본에 따라야 하고 제작연월, 장인(匠人), 담당관의 이름 및 제작한 주(州)와 감(監)을 명기한다. [각공은 뿔(로 만든 활짚)의 표면에 새기며, 갑옷은 몸통 갑옷[身甲], 하체 갑옷[裙], 어깨 갑옷[覆膊]에 명기한다. 모두 사용한 미늘[行鏃]의 수를 기록한다.] 주기 글자는 모두 붉은 옷을 사용한다. (제작 사항을) 새길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않는다.³³⁾

書省에 올리면 尚書省이 담당관서에 문서를 보내 공급한다. 무릇 다섯 관서의 창고로 들어오는 물품은 품명과 수량, 생산지를 모두 장부에 기록하여 계절 말 담당관서에 올리고 부분은 少府監에 남긴다. 창고에서 제작품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곳을 기재하고 날인 서명한다. (丞掌判監事, 凡五署所修之物須金石·齒革·羽毛·竹木而成者, 則上尚書省, 尚書省下所由司以供給焉. 凡五署之所入於庫物, 各以名數並其州土所生以籍之, 季終則上於所由, 其副留於監; 有出給者, 則隨註所供而印署之.)”

30) 『唐六典』 卷22 「少府軍器監」, 下-pp.105-106. “甲防署 令은 1인으로 정8품하이이고 丞은 1인으로 정9품하이이며, 監作은 2인으로 종9품하이이다. (『周禮』 「考工記」에 「函人은 갑옷을 만든다. 서갑은 7속, 시갑은 6속, 함갑은 5속이다. 무릇 갑옷을 만들 때는 먼저 사람의 체형을 잴 뒤에 갑옷을 재단하고 그 허리 윗부분과 허리 아랫부분을 헤아려서 아래 위의 무게를 똑같이 한다.”라고 하였다. 隋의 少府에는 甲鎧署가 있었는데, 唐에서 (甲防署로) 바꾸었다.)([甲坊署: 令一人, 正八品. 丞一人, 正九品下; 監作二人, 從九品下. (『周禮』 「考工記」曰: 「函人為甲: 犀甲七屬, 兕甲六屬, 合甲五屬. 凡為甲, 先必為容, 然後制革, 權其上旅與其下旅, 而重若一.」隋少府有甲鎧署, 皇朝改焉.))”

31) 『唐六典』 卷22 「少府軍器監」, 下-p.104, 主253.

32) 天聖令은 宋 仁宗 天聖7년(1029)에 편찬되어 天聖10년(1032)부터 시행된 영으로 오랫동안 산 일되었다고 알려져 왔으나 1999년 닝보(寧波) 天一閣 소장 明代 사본 가운데 일부가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김택민·하원수 주편, 『천성령 역주』, 혜안, 2013. 해제 참조. 이하 인용한 『천성령』은 『천성령 역주』를 의미한다.)

33) 『天聖令』 卷28 「營繕令」, p.512. “諸營造軍器, 皆須依樣, 鑄題年月及工匠·官典姓名, 及所造州·

규정에 따르면 군사 기물을 완성하면 표면에 제작연월, 장인, 담당관의 이름, 제작 주, 감 등 제작이력을 ‘붉은 옷’으로 기록하였다. 이 규정은 칠갑의 명문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준다. 칠갑의 명문에서 확인된 글자, 즉 ‘貞觀十九年四月廿一日(정관십구년사월입이일) [제작연월일], ‘叅軍事(참군사)’, ‘護軍(호군)’, ‘陪戎副尉(배용부위)’ 등의 관직명[담당관명], ‘李肇銀(이조은)’, ‘趙良(조량)’ 등의 이름[제작자 및 담당관의 성명], ‘益州’[주: 제작지], ‘王武監’[감: 제작소] 등은 위 규정에 따라 주기해야 할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리고 ‘붉은 옷을 사용한다’는 것 또한 칠갑의 명문이 이 규정에 따라 주기되었음을 뒷받침해준다.

- ① 무릇 군기를 제작할 때는 모두 제작연월 및 공장의 이름을 적어 물건을 판별하고 허실을 살핀다.³⁴⁾
- ② 무릇 군기를 제작할 때는 모두 견본에 따르고 연월 및 공장의 성명을 적도록 한다. 만일 적을 수 없는 경우, 이 영을 적용하지 않는다.³⁵⁾

①, ②는 모두 『천성령 역주』에 수록된 유관 당송문이다. ①은 『당육전』 장작감(將作監) 승(丞)의 직장(職掌) 부기된 내용으로 당령의 조문을 전제한 것이다. 장작감은 토목, 건축, 기계 등을 제작했으며 아울러 대형 병장기의 제조도 담당했다. 위 영이 언급하고 있는 ‘군기’는 장작감에서 제작하는 병기 뿐 아니라 갑옷을 포함한 무기 전반을 의미한다.

②는 『영의해(令義解)』 영선령이다. 『영의해』는 일본 준나텐노(淳和天皇)의 칙명으로 833년 편찬한 영의 주석서이다. 8세기 당령을 받아들여 제정한 다이호 령(大寶令, 701년 시행)과 요로 령(養老令, 757년 시행)이 담겨 있다. 『영의해』의 관련 조문은 붉은 옷칠로 주기한다는 내용만 없을 뿐 천성령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³⁶⁾

監[角弓則題角面, 甲則題身裙覆膊, 並注行錄數.] 其題並用朱漆, 不可鑄題者, 不用此令.”

34) 『唐六典』 卷23 「將作都水監」, 下-pp.105~106. “凡營軍器, 皆鑄題年月及工人姓名, 辦其名物, 而閱其虛實.”(『천성령 역주』, p.513에서 재인용)

35) 『令義解(國史大系 第二部2)』, 吉川弘文館, 1962(昭和37) 營繕令 제20, pp.221~222. “凡營造軍器, 皆須依樣, 令鑄題年月及工匠姓名, 若有不可鑄題者, 不用此令.”(『천성령 역주』, p.513에서 재인용)

36) 『요로 령』의 세칙인 『엔키 식(延喜式)』에는 갑옷[挂甲]의 제작 공정 관련 기록이 있다. 『延喜式(下)(國史大系 第二部 十冊)』, 吉川弘文館, 1964(昭和39) 兵庫寮 제20, pp.221~222. “挂甲一領(札八百枚): 長功百九十二日, 中功二百廿日, 短功二百六十五日, 打札廿日, 麤磨卅日, 穿孔廿日, 錯穴并裁札卅五日, 錯稜十三日, 砥磨青砥磨并瑩卅日, 橫縫并連七日, 縫頸牒并繼著二日, 著緣一日, 擘拘并裁韋四日, [擘縮有手力下同]; 中功日打札廿三日, 麤磨卅六日, 穿孔廿三日, 錯穴并裁札五十二日, 錯稜十五日, 砥磨青砥磨并瑩卅六日, 橫縫并連八日, 縫頸牒并繼著二日, 著

천성령의 해당 내용은 당령의 일문(佚文)과 당령을 기초로 제정한 일본령과 거의 동일하다. 그런 점에서 위의 조문은 천성령 가운데 송대에 시행한 현행령이지만 “당령을 근본으로 삼아” “예전의 조문을 바탕으로” 한 천성령의 편찬 방향에 따라 송대로 계승된 당령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중국학자 바이싱건은 주칠명문을 근거로 칠갑을 의례용이라 주장하였지만(拜興根 2016: 536) 이는 영의 규정에 따라 제작과정에서 기입된 것이다. 이현숙은 명문의 위치와 기록된 형태로 미루어 볼 때 칠갑 제작의 마지막 단계에서 기록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제작 후 본 규정에 따라 명문을 주기했기 때문일 것이다.³⁷⁾

소부감 우상방서에서 제작한 갑옷은 위위시(衛尉寺)로 이관되었다.

위위경(衛尉卿)의 직무는 나라의 기계(器械), 문물(文物)에 관한 정령을 관장하며, 무고(武庫), 무기(武器), 수궁(守宮)의 세 관서의 관속을 총괄한다. 소경(少卿)은 차관(次官)이다. 무릇 천하의 병기(兵器)가 경사(京師)로 들어오는 경우 그 명목(名目)과 숫자를 장부에 기록하여 보관해 둔다. 무릇 대제사(大祭祀)와 대조회(大朝會)의 경우에는 우의(羽儀), 절월(節鉞), 금고(金鼓), 유여(帷帟), 인석(茵席)과 같은 것을 공급한다. 숙위(宿衛)에게 제공해야 할 물품의 경우에는 해마다 두 번 그것을 검열해야 하는데 만약 분실하거나 손상된 것이 있으면 바로 소부감이나 금오위(金吾衛)로 이관하여 수리한다.³⁸⁾

緣一日，擘拘并裁韋四日；短功日打札廿七日，麤磨五十六日，穿孔廿八日，錯穴并裁札六十三日，錯稜十八日，砥磨青砥磨并瑩五十六日，橫縫并連九日，縫頸牒并繼著二日，著緣一日，擘拘并裁韋五日，修理挂甲一領料，漆四合，勺六撮，緋絕二尺五寸，緋絲三銖，絲五銖，調綿一屯六兩，商布一丈四尺，洗革四半張，掃墨一合，馬革一張半，絲一兩三銖，單功卅一人。”(이현숙, 「공산성 출토 칠피갑옷의 조사성과와 향후과제」, 『백제칠피갑옷의 비밀』[(백제칠피갑옷의 고증을 위한 국제 학술 포럼(2018.8.27.-8.28. 국립공주대학교) 자료집에서 재인용. 여기서 이현숙은 長工을 기준으로 192일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長功은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한 만큼 실 제작기간은 이보다 더 길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때리기	무두질	천공	구멍 뚫기 및 재단	모서리 다듬기	다듬기 및 광내기	수평 재봉연결	경부·수직 재봉연결	가장자리 대기	고리/끈 (부속구) 부착	소계 (일)
	打札	麤磨	穿孔	錯穴 并裁札	錯稜	砥磨青 砥磨并瑩	橫縫并連	縫頸牒 并繼著	著緣	擘拘 并裁韋	
長功	20	40	20	45	13	40	7	2	1	4	192
中功	23	46	23	52	15	46	8	2	1	4	220
短功	27	56	28	63	18	56	9	2	1	5	265

* 長功은 4·5·6·7월, 中功은 2·3·8·9월, 短功은 10·11·12·1월 기준 작업량을 말한다. 功은 1일당 작업시간으로 일조시간 동안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절의 낮과 밤의 길이차를 고려하여 차등을 둔 것이다.

37) 최근 학술대회에서 추가로 확인된 명문 가운데 숫자가 보인다고 했는데, 이는 영 규정에 따라 기입한 미늘[行鏃]의 수일 수 있다.

38) 『唐六典』卷16 「衛尉宗正寺」, 中-pp.457~458. “衛尉卿之職，掌邦國器械·文物之政令，總武庫·

위위시는 숙위에 필요한 물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위위시 속하에는 무고령(武庫令)이 있어 갑옷을 포함한 무기의 관리와 출납을 담당했다.

무고령(武庫令)은 양경(兩京: 장안과 낙양)에 각 1인이 있고 종6품하이며 승(丞)은 1인으로 종8품하이고, 감사(監事)는 1인으로 정9품상이다. 무고령은 천하의 병기와 기계를 관장하여 그 명칭과 숫자를 판별하고 나라의 쓰임에 준비한다. 승은 차관이다.³⁹⁾

천성령 구령에는 위위시의 무기 관리 규정이 있다.

무릇 숙위에게 공급되는 병기는 매년 위위경이 두 차례 순시하여 검열하는데, 위위경은 병기의 묶음별로 소부감과 상의하여 장인에게 금오위와 함께 병기를 진열한 곳へ가서 검사하여 깎고 수선하는 일을 마치도록 지시하며 어사대로 하여금 다시 검사하도록 한다. 남은 것 중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것이 있거나 파손된 것이 있으며 즉시 처리하도록 한다. 만약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파손한 경우나 검사한 장인이 파손된 것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모두 주관 관사에 추국하여 죄를 처벌한다.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각 위에서 담당관사에 보고하여 (파손된 병기를) 소부감에 보내어 수리하도록 하고 무고에서 교체하여 지급한다. 만일 여러 곳에서 보내 온 병기 등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역시 이에 따른다. 금과 은으로 장식된 칼을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파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패용해서 사용한 자에게 추징하고 마모된 경우 관에서 수리한다.⁴⁰⁾

위의 규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위시는 갑옷의 관리를 담당했다. 위위시의 수장인 위위경은 병기를 제작 및 수리를 담당하는 소부감, 무기를 공급받아 궁궐을 숙위하는 금오위와 함께 무기를 점검했다. 무기를 파손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 남은 것은 관에서 수리하였다. 당이 의자왕을 위위경에 추증한 것도 무왕대 이래 백제가 수차에 걸쳐 당에 갑옷을 선물했던 것을 참작한 결과로 보인다.

武器·守官三署之官屬；少卿為之貳。凡天下兵器入京師者，皆籍其名數而藏之。凡大祭祀·大朝會，則供其羽儀·節鉞·金鼓·帷簾·茵席之屬。其應供宿衛者，每歲二時閱之，其有損弊者，則移於少府監及金吾修之。”

39) 『唐六典』卷16 衛尉宗正寺，中-pp.457~458. “武庫令：兩京各一人，從六品下；丞一人，從八品下；監事一人，正九品上。武庫令掌藏天下之兵仗器械，辨其名數，以備國用；丞為之貳。”

40) 『天聖令』卷28 「營繕令」，pp.532~533. “(舊1) 諸軍器供宿衛者，每年二時，衛尉卿巡檢，其甲番別與少府監相知，令匠共金吾就仗鋪同檢，指授縫連訖，仍令御史臺重覆，餘有不調及損破，隨卽料理。若非理損壞，及所巡匠知壞不言者，並令主司推罪，其有不任者，各從本衛申所司，送在府監修理，於武庫給替，若諸處所送器仗等須修理者，亦准此。其金銀裝刀，若有非理損失者，追服用人，研耗者，官為修理。”

갑옷의 제작과 관리는 중앙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이루어졌다. 앞서 제시한 천성령 규정에서 ‘제작한 주’를 명기하게 했다는 것은 주 단위에서 갑옷을 제작했음을 보여준다. 투루판 출토 서주(西州) 문서에서도 ‘갑장(甲匠)’을 볼 수 있다.⁴¹⁾ “성과 해자를 건설하고 갑옷과 병기를 제작 수선하는 주현의 역사(役事)는 군무(軍務)의 10배에 달한다.”⁴²⁾는 적인결(狄仁傑)의 지적은 주에서 무기의 제조와 수선에 많은 공력을 들였음을 시사한다. 주에서 군기의 관리는 병조참군사가 담당했다. 유사시 또는 행군이 편성될 때, 병사들은 주에서 무기를 지급받았다.⁴³⁾

갑옷을 불출할 때는 미늘의 수를 세어 갑옷 끈에 주기한다. 포는 무게를 달아 포의 배면에 근량(斤兩)을 주기한다. 아울러 창은 길이의 척장(尺丈)을 헤아린다. 담당 장교(軍司)는 문안을 작성한다. 일이 마무리되고 반납할 때 개수와 장단근량을 비교하여 같으면 받고 흠결이 있으면 헤아려 처결하고 보충을 요구한다. 군기는 반드시 같고 닦아 보수해야 하며 훼손하고 버려서도 안 된다.⁴⁴⁾

주의 무기고에서 무기를 꺼낼 때는 대장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반납 시 대장과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였다. 갑옷의 경우에는 미늘의 수까지 확인하여 주기하도록 하였다. ‘흠결이 있으면 헤아려 처결하고 보충을 요구한다’는 말은 위의 천성령과 동일한 규정, 즉 무기가 파손되었을 경우 바로 수리하되 합하지 못한 연유로 파손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삼경(三京) 및 주(州)와 진(鎭) 등의 무기고에 저장된 병기가 녹이 슬거나 [실밥이] 터지거나 부러진 것이 있는 경우, 매년 한 차례 수리한다. 만약 출급된 이후 파손된 경우 모두 사안에 따라 처리하는데, 각각 장관이 직접 대조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경사에 서는 필요한 비품과 인력은 삼사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대규모 작업이 필요한 경우 담당 관사에 보내어 수리한다. (경사의) 밖에서는 해당 지역에 주둔하는 병사와 방인을

41) 『吐魯番出土文書(參)』, p.241. 唐憲安等匠人名籍(二)[66TAM61:27/5(a)]. 甲匠으로 ‘申屠君達, 樊守洛, (樊守洛의) 동생 緒仁’이 확인된다.

42) 『舊唐書』 卷89 狄仁傑傳, p.2892. “修築池城, 繕造兵甲, 州縣役使, 十倍軍機.”

43) 『唐六典』 권5 尚書兵部, pp.508~509. “무릇 行軍할 때 필요한 器物은 모두 소재 州에서 공급하며 부족한 것은 병사 스스로 갖추되 반드시 빈부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무릇 각주의 군부는 행군할 때 兵馬의 名簿와 器物의 다소를 모두 兵部에 보고한다.”

44) 『通典』 권149 「兵」2 雜教令, p.3820. “諸應請甲數葉行數, 於甲襪上鈔記; 其袍, 秤知斤兩, 於袍背上具注斤兩; 并槍, 量長短尺丈: 軍司並立為文案. 如事了卻納, 取按勘數, 長短斤兩同即納; 如有欠少, 隨即科決徵備. 其軍器, 常須磨礪修補, 亦不得毀棄.”

동원하는데 사용할 비품은 해당 주의 관물을 내어 공급한다. 만약 병사와 방인 및 비용이 없는 경우, 삼사에 상신하고 처리하면 관물의 사용을 허락한다. 만일 동원해야 할 장인이 해당 주에 없다면 가까운 주에서 보낸다.⁴⁵⁾

위는 천성령 영선령으로 ‘삼사(三司)’ 등으로 볼 때 송 이후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조문에 언급된 여러 사안, 즉 1년 1회 수리, 출급 이후 파손 병기의 처리, 수리에 소요되는 장인과 물자의 동원은 당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투루판 출토 서주 문서는 주에서 병기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보여준다.

① 창 4개, 갑옷 5령 [철갑 1령, 피갑 4령, 그 가운데 피갑 1령은 소록군(疏勒軍)에 교부]
槍四張, 甲五領[一鐵, 四皮, 一皮抽付疏勒軍.]⁴⁶⁾

② 갑옷 7령, 모두 피갑, 2월 20일 우(牛)[]에게 교부
갑옷 4령, 철갑 2령, 피갑 2령, 2월 20일 대정(隊正) 음(陰)[]에게 교부
갑옷 4령 모두 피갑, 2월 20일 대정[]에게 교부
삭 3개, 모두 반고파, 2월 20일
령
갑옷 5령 []자루/자루. 2월 20일 강세다에게 교부
갑옷 9령 []면 자루 2령 소금 자루 2
월 20일 음광령…
甲柒領, 並皮, 二月廿日付牛[],
甲肆領二鐵, 二皮, 二月廿日付隊正陰[],
甲肆領並皮, 二月廿日付隊正[].
槩參張, 並潘故破, 二月廿日[
領.
甲伍領[]袋. 袋. 二月廿日付康世多.

45) 『天聖令』卷28 「營繕令」, pp.516~517. “三京及州鎮等貯庫器仗, 有生澀綻斷者, 每年一修理. 若經出給破壞者, 並隨事料理, 各委長官親自對料. 在京者, 所須調度人功, (再)申三司處分. 其須大作者, 送司修理. 在外者, 役當處鎮遏兵防(防兵防)調度, 出當州官物供, 若無兵防及調度, 申三司處分, 聽用官物, 及役(後)工匠. 當州無, 出比州.”

46) 『吐魯番出土文書(參)』, 文物出版社, 1992, p.373. 唐軍府甲仗簿[73TAM222:51] []안의 글자는 작은 글씨로 기재하였다. 이 문서가 출토된 아스타나 222호 무덤에서는 당 및 武周 때 문서가 다수 출토되었으며 기년문서로는 咸亨2년(671), 垂拱4년(688), 證聖元年(695)가 있다. 이로 볼 때 본 문서도 7세세기 후반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甲玖領[]面袋二領鹽袋二
月廿日[]陰匡領...⁴⁷⁾

- ③ 앞서 판에 교부한 기장, 갑옷, 노, 궁, 맥도, 弓 등 문서에 장군군이 잃어버렸다는 물건이 있다. 죽무수대좌 사현정 등 본대가 출행하니 후에 진본을 구하면 그와 대면하여 훼손되고 파괴된 것을 확인하되 믿을 수 없는 것이 있으면 V표시를 하여 검험하라. 함형5(년) 3월 18일, 장군군 기록.

前付官器丈甲弩弓陌刀口等抄, 張君々遺失, 其物見在, 竹武秀隊佐史現政等本隊將行, 後若得眞抄, 宜令對面毀破, 爲人無信, 抄V畫爲驗. 咸亨五三月十八日, 張君々記.⁴⁸⁾

①, ②는 교부대장이다. 교부받은 사람, 교부 내역(종류 및 수량), 교부 일자를 기록하였다. 갑옷의 경우, 재질에 따라 철갑과 피갑을 구분하여 수량을 명기하였다. 앞서 인용한 당률 조문에서도 갑옷의 재료를 철과 가죽으로 구분했는데 교부대장도 같은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부수량을 보면 철갑보다 피갑이 많다는 점도 눈에 띈다. ③은 장군군이 병장기를 수령한 후 일부를 분실했다고 신고하자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는 공문서 사본이다. 비록 앞서 인용한 조문에 명시된 것처럼 미늘의 수까지 기재하지는 않았어도 갑옷의 출납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음은 확인할 수 있다.

V. 나오며

이상 공산성 출토 철갑의 명문을 검토하고 당대 갑옷의 제작과 관리에 대하여 살펴해보았다. 지금까지 확인된 철갑의 명문을 보면 작성 주체는 당이며 작성 경위는 제작 이력의 주기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금속제 호심경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는 현재로서 철갑을 ‘명광개’로 부를 수 없다는 것도 확인했다.

47) 『吐魯番出土文書(貳)』, 文物出版社, 1992, p.275. 唐隊正陰某等領甲仗器物抄(1)[73TAM507:015/1] 이 문서가 출토된 아스타나507호 무덤에서는 국씨고창국시대 문서와 당대 문서가 함께 발견되었다. 당대 기년 문서는 2점으로 각기 儀鳳2년(677)과 調露2년(680)이다. 이로 볼 때 본 대장도 7세기 후반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48) 『吐魯番出土文書(參)』, 文物出版社, 1992, p.486. 唐咸亨五年(674)張君君領當隊器仗·甲弩·弓·陌刀等抄[64TAM35]

칠갑의 기년을 전후로 한 시기, 당에서 갑옷은 개인이 사유하거나 제작할 수 없는 ‘금병기’ 가운데 하나로 국가가 제작과 관리를 전담했다. 중앙에서는 소부감 및 군기감이 제작하고 위위시 등이 관리했으며 지방에서는 주를 단위로 이루어졌다. 국가는 갑옷을 포함한 무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혹여 있을지 모르는 소요나 반란 시 파괴력 있는 무기들이나 효과적인 방어구가 적대세력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을 것이다.

군대가 출행할 때 각기 장수들을 불러 병기를 지급하고 사졸에게 지급할 때 활 하나 화살 하나까지 반드시 그 위에 성명을 쓰라고 하였다. 군대가 해산하고 반환할 때,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그것을 확인하여 처벌하니 사람마다 힘써 무기가 충실해졌다.⁴⁹⁾

8세기 활동했던 당의 장수 왕충사(王忠嗣)는 무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사용자의 이름을 적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군의 전력을 제고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그는 한동안 수세에 몰렸던 대토번전쟁에서 승기를 세울 수 있었다. 왕충사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무기의 책임 관리는 군대의 전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했다.

사회의 안전과 군사력의 유지를 위하여 무기의 제작과 관리는 법, 즉 율과 영으로 책임과 절차가 명시되었다. 투루판 출토 문서는 동시기 변경이자 최전선이었던 서주에서도 갑옷 등 금병기가 율령 규정에 따라 관리되었음을 보여준다. 7세기부터 9세기 전반까지 동아시아 전역에서 당나라 군대가 효과적으로 활약할 수 있었던 데는 이와 같이 전국적인 병장기의 관리도 한몫 했을 것이다. 투루판 출토 고문서와 더불어 공산성 출토 칠갑은 당 전반기 갑옷의 제작과 관리가 율령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실물 자료이다.

그러나 645년 익주에서 제작된 갑옷이 어떻게 공산성 성안에 매장되었는지 추가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칠갑의 형태나 특징, 출토 위치에 관한 해석 등은 필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영역이다. 향후 명문의 추가 확인과 더불어 고고학적, 보존과학적 분석을 통해 칠갑이 담고 있는 여러 이야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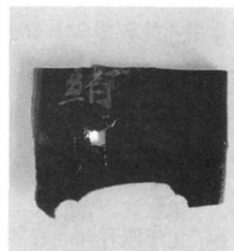
49) 『舊唐書』卷103「王忠嗣傳」, p.3199, “每軍出, 即各召本將付其兵器, 令給士卒, 雖一弓一箭, 必書其名姓於上以記之, 軍罷却納, 若遺失, 即驗其名罪之, 故人人自勤, 甲仗充牣矣.”



① 李銀



② 史護軍



③ 緒



④ 王武監大口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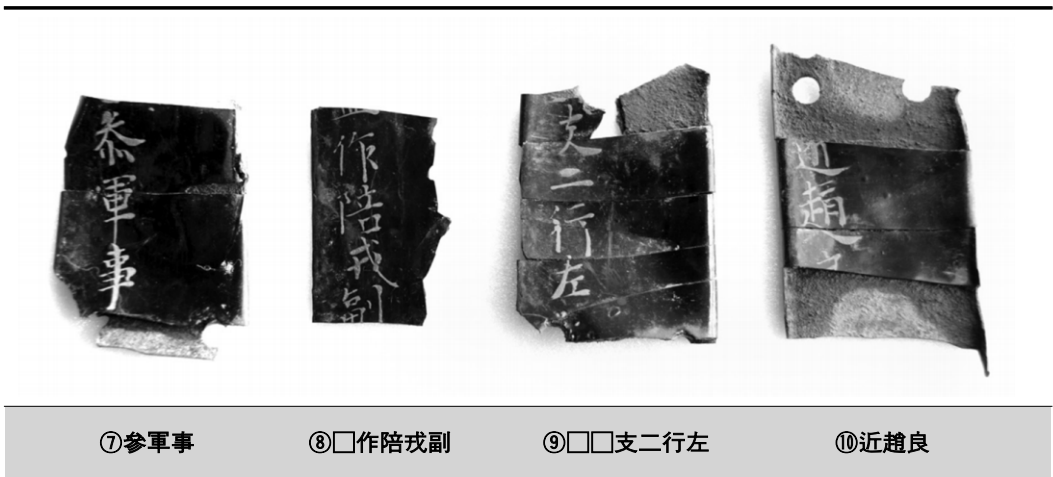
⑤ 行貞觀十



⑥ 九年四月廿一日

[출처: 李南奭, 「公山城出土 百濟 漆刹甲의 銘文」, 한국목간학회, 『목간과문자』9, 2012.10.]

사진 1. 2011년 출토 칠갑편



[출처: 이현숙, 「公山城 新出土 銘文資料」, 『목간과문자』14, 2015.6.]

사진 2. 2014년 출토 칠갑편

참고문헌

- 김종완, 1995, 『中國南北朝史研究-朝貢·交聘關係를 中心으로-』, 一朝閣.
노중국, 1988, 『百濟政治史研究-國家形成과 支配體制의 變遷을 中心으로-』, 一朝閣.
이남석, 2011, 「百濟 熊津城(公州 公山城)의 2011년 發掘資料 檢討」, 2011년 한국고대학회 하반기 정기학술대회-한국 고대 성(城)의 재발견.
이남석, 2012, 「公山城出土 百濟 漆刹甲의 銘文」, 한국목간학회, 『목간과문자』9.
이도학, 2012, 「公山城 出土 漆甲의 性格에 대한 再檢討」, 『인문학논총』28.
이한상, 2018, 「백제 '최후의 날' 함께한 공산성 갑옷[이한상의 발굴 이야기(28)]」, 『조선일보』.
이현숙, 2015, 「公山城 新出土 銘文資料」, 『목간과문자』14.
- 賴瑞和, 2008, 『唐代基層文官』, 中華書局.
拜興根, 2016, 「韓國新出考古史料研究二題」, 『唐研究』21.
周紹良, 1992, 『唐代墓誌彙編』, 上海古籍出版社.
周紹良, 2001, 『唐代墓誌彙編 續集』, 上海古籍出版社.
楊泓, 2012, 「中國古代的皮甲: 兼談韓國公州出土唐貞觀十九年銘皮甲」, 『中國文物報』.
陳蘇鎮, 1991, 「北周隋唐的散官與勳官」,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 『三國史記』(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冊府元龜』(위키문고)
『資治通鑑』(위키문고)
『唐律疏議』(劉俊文 點校, 中華書局, 1983.)
『唐六典』(김택민 주편, 『譯註 唐六典』, 신서원, 2005.)
『天聖令』(김택민·하원수 주편, 『천성령 역주』, 혜안, 2013.)
『新唐書』(중앙연구원 한적전자문헌)
『舊唐書』(중앙연구원 한적전자문헌)
『唐會要』(標點本, 上海古籍出版社, 2006.)
『通典』(중앙연구원 한적전자문헌)
『令義解』(國史大系 第二部), 吉川弘文館, 1962(昭和37).
『延喜式』(國史大系 第二部), 吉川弘文館, 1964(昭和39).
『吐魯番出土文書』(文物出版社, 1992.)

【Abstract】

Re-examination of the Inscription on the Lacquerware Armor from Gongsanseong Mountain Fortress

Lee Taehee*

The remains of a suit of lacquerware armor featuring an inscription were recovered from Seongan Village in Gongsanseong Mountain Fortress in 2011 and 2014. The finds became the subject of great interest,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as the inscription featured a definite date and was a valuable contribution to the sorely lacking corpus of written data on Baekje history. However, the place where the armor was produced continues to be a subject of debate. This paper aims to shed light on the provenance of the armor by considering the motives for the inscription, through a consideration of other written sources.

The official title names that appear in the inscription provide a clue regarding the provenance of the armor. In total, four official title names appear: 參軍士, 大夫, 陪戎副□, 護軍. Based on the fact that the place name ‘益州’ was found on an armor scale piece recovered elsewhere at the site, it can be assumed that ‘參軍士’ refers to ‘兵曹參軍事’, a military post. ‘大夫’ refers to an administrative post that can span from the junior 2nd rank to the junior 5th rank, according to the title that comes before. ‘陪戎副□’ refers to the lowest military post, which is the junior 9th ranked ‘陪戎副尉’. ‘護軍’ refers to ‘勳官 9th post 銓’ which is equivalent to the senior 3rd rank. All of these ranks are those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Tang Dynasty. This indicates that the inscription had been written from the perspective of Tang China.

Previous studies have regarded this lacquerware armor as an actual example of Baekje armor; some have even called it an example of ‘Myeonggwang’ armor, mentioned in ancient texts. The reason that the find was regarded to be an example of ‘Myeonggwanggae’ armor was because it is believed that the yellow surface of the lacquerware armor would have reflected light. However, ‘Myeonggwanggae’ armor is identified as such due to the attachment of a breastplate at the chest section, as well as based on its form, and not simply due to the use of lacquer. The addition of lacquer to the surface to produce a shine was a popular practice at the time in the case of ceremonial armor, and also took place in the case of ‘Gwangyo’ and ‘Sanmun’ armor.

13 different types of armor and the materials used to make them are presented in *Tang liudian* (唐六典). Of these, ‘Myeonggwanggae’, ‘Gwangyo’, and ‘Sanmun’ are categorized as ‘iron

* National Museum of Korea

armor'; lacquer covered armor made using a leather base is categorized as 'leather armor'. References to Baekje armor that appear in texts are mainly of metal armor, and therefore can be distinguished from leather armor in terms of their material. In other words, lacquerware armor cannot be 'Myeonggwangae' armor, and its links with the Baekje armor mentioned in texts is also weak.

The private production or ownership of key weapons was forbidden in Tang China. This fact can be established based on the known rules of the time. In relation to lacquerware armor, the Tiansheng Statutes (天聖令) and Yingshan Statutes (營繕令) of are interest. According to these rules, it was required that a record of the date and place of production, craftsman and workshop, signature of overseeing official, and the number of scales be made on the surface of the armor. This is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the inscription found on the surface of the lacquerware armor under study. As such, it appears that the inscription was a record of the lacquerware armor's history, following its production.

The lacquerware armor from Gongsanseong Mountain Fortress represents an important piece of evidence that demonstrates that the production and maintenance of armor took place in strict adherence to rules and regulations throughout the Tang Dynasty. It is hoped that further studies on the inscription, and the archaeological analysis and conservation works will make it possible to gain more information on the stories that the armor contains.

Key words : Baekje, Tang, lacquerware armor, leather armor, 'Myeonggwangae',
'Myeonggwang' armor, Tiansheng Statutes, rules and regulation,
lacquer surface, inscription